



6월 16일



낮에는 햇볕이 짹짹,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해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밤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뜨거운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아, 배고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희고, 꿀맛 나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아, 목이 말라! 물을 좀 주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시원한 물이 콧콧 쏟아졌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생각하는 아이

어려운 시련도 씩씩하게 이겨내요

햇살이 따가운 오후예요.

"와아! 정말 예쁘다."

소망이 잎사귀 사이로 동글동글한
초록색 토마토가 열렸어요.

"토마토가 너무 뜨거울 거야. 햇빛을 가려줘야지."
남우는 스카치테이프와 신문지를 가져와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에 붙였어요.



"남우야, 왜 신문지를 붙여놨니?" 궁금한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아빠,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토마토가 많이 따가울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지만 빨갱고 맛있는 토마토가 열리기 위해서는 썩썩하게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야 하는 거야. 우리 남우도 앞으로 멋진 주의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썩썩하게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단다."

남우는 아빠 말씀대로 썩썩하고 멋진, 주의 어린이가 되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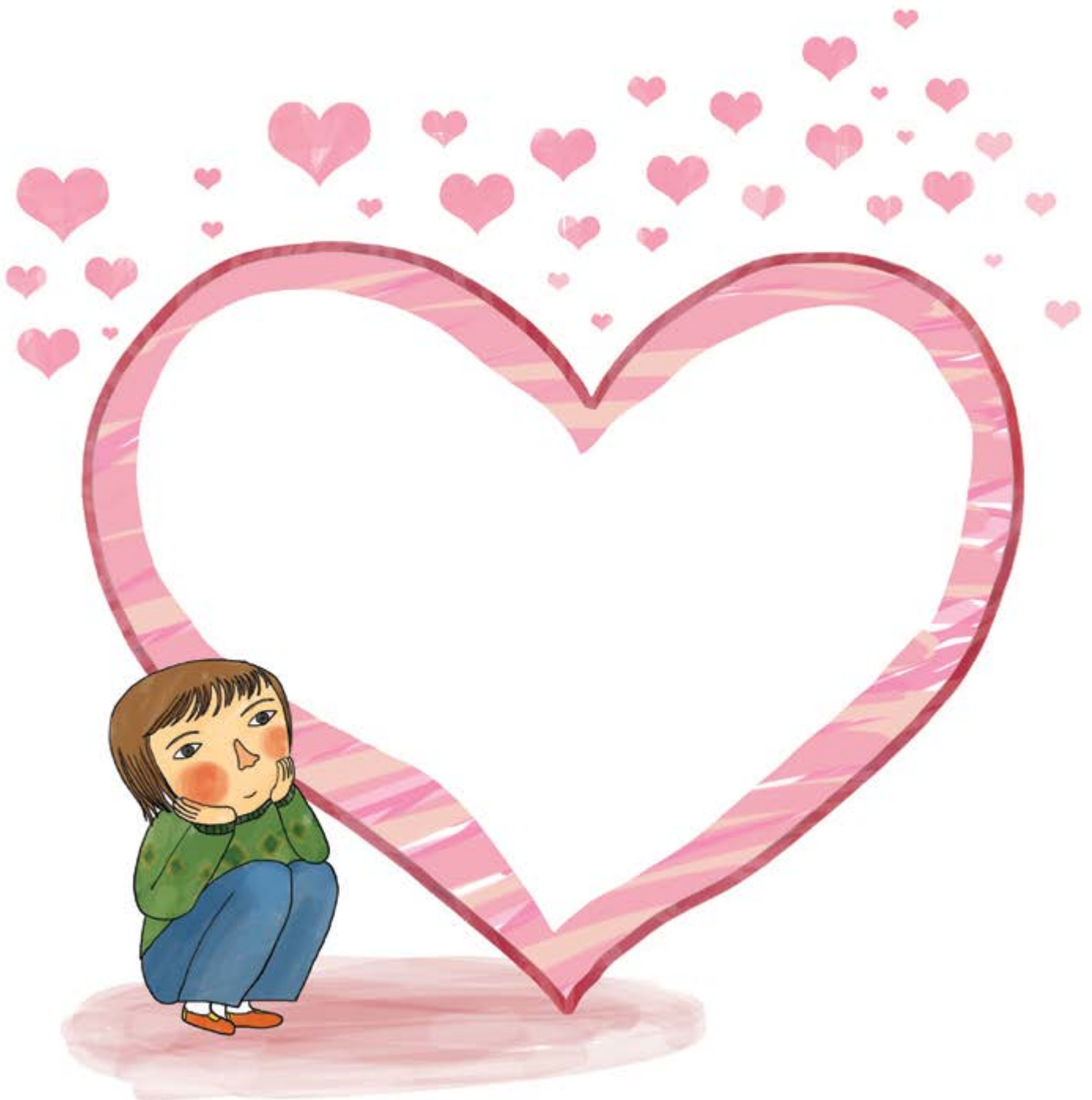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햇빛, 물 그리고 흙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새싹은 예쁜 꽃,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꽃과 나무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튼튼하게 자라고 오랫동안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꽃과 나무를 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자랄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요.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사막(광야)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땅이에요.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밤에는 퐁퐁 얼어붙은 것처럼 춥습니다.
사막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모래가 쌓이고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샘 근처에만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데 이곳을 '오아시스'라고 하지요.



낙타의 발은 평평해서 모래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길어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어요. 콧구멍도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을 수 있답니다. 낙타의 등에는 영양분이 있고, 몸 구석구석에 물이 저장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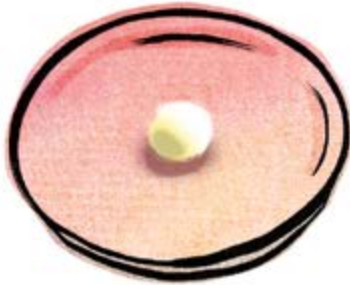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은 따로 있어요. 낙타, 선인장, 방울뱀, 올빼미 등이 있어요. 이런 식물과 동물은 사막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즐거은 활동

세 접시에 각각 만나가 담겨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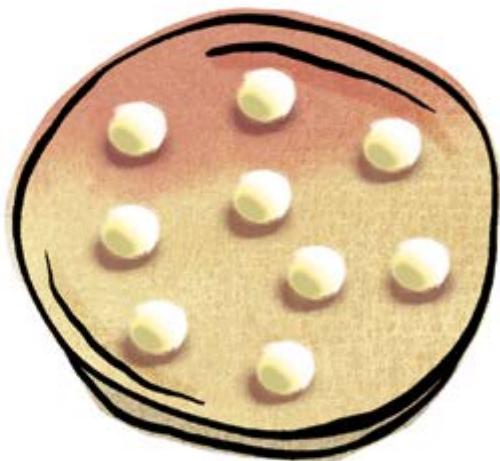
4개



1개



4개



한 접시에 담으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개

세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그려 보세요.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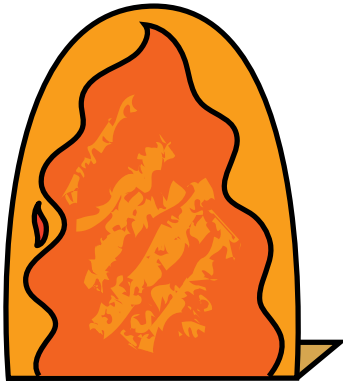
개



개

불 기둥, 구름 기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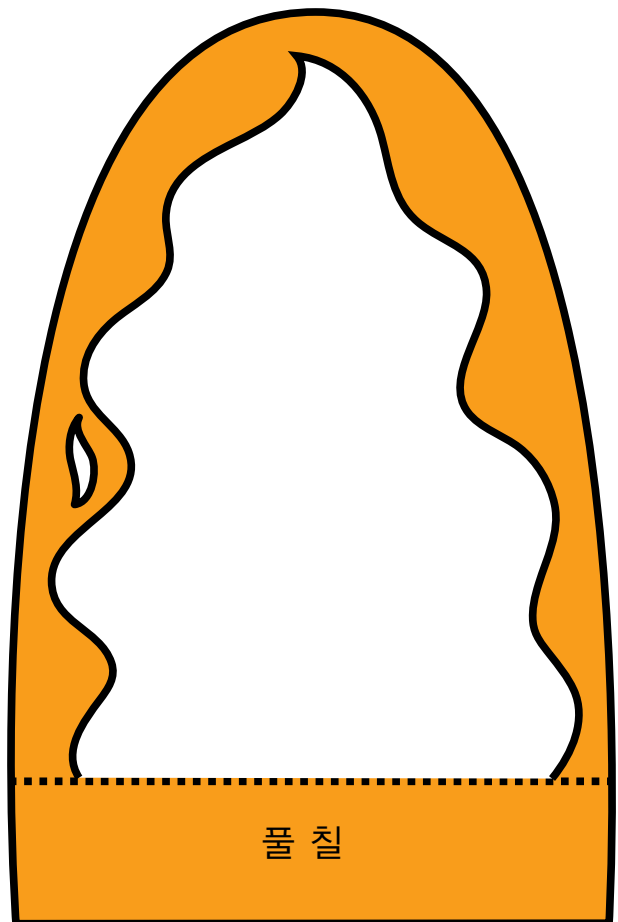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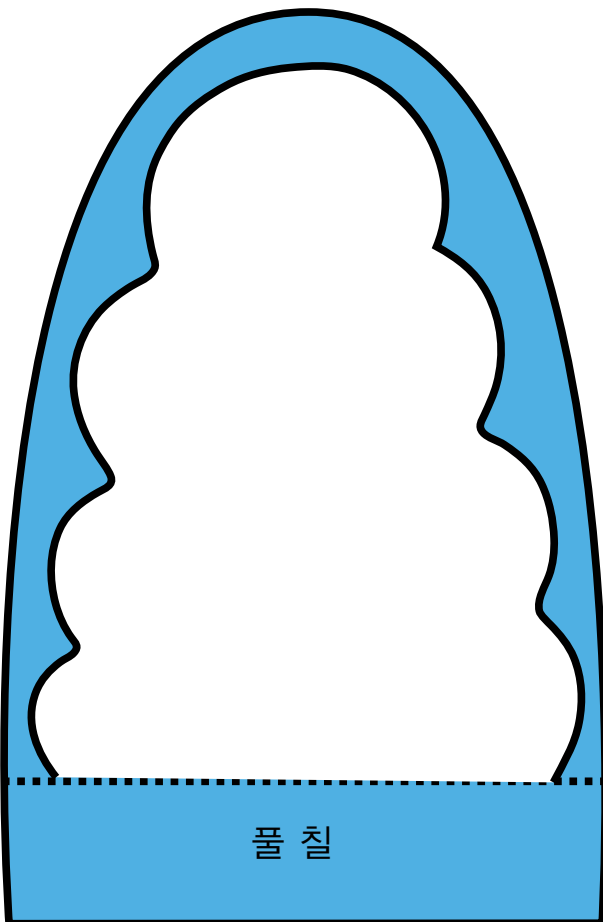
아래에 있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예쁘게 색칠하고 오리세요.
밑 단을 접어 각각 맞는 자리에 풀로 붙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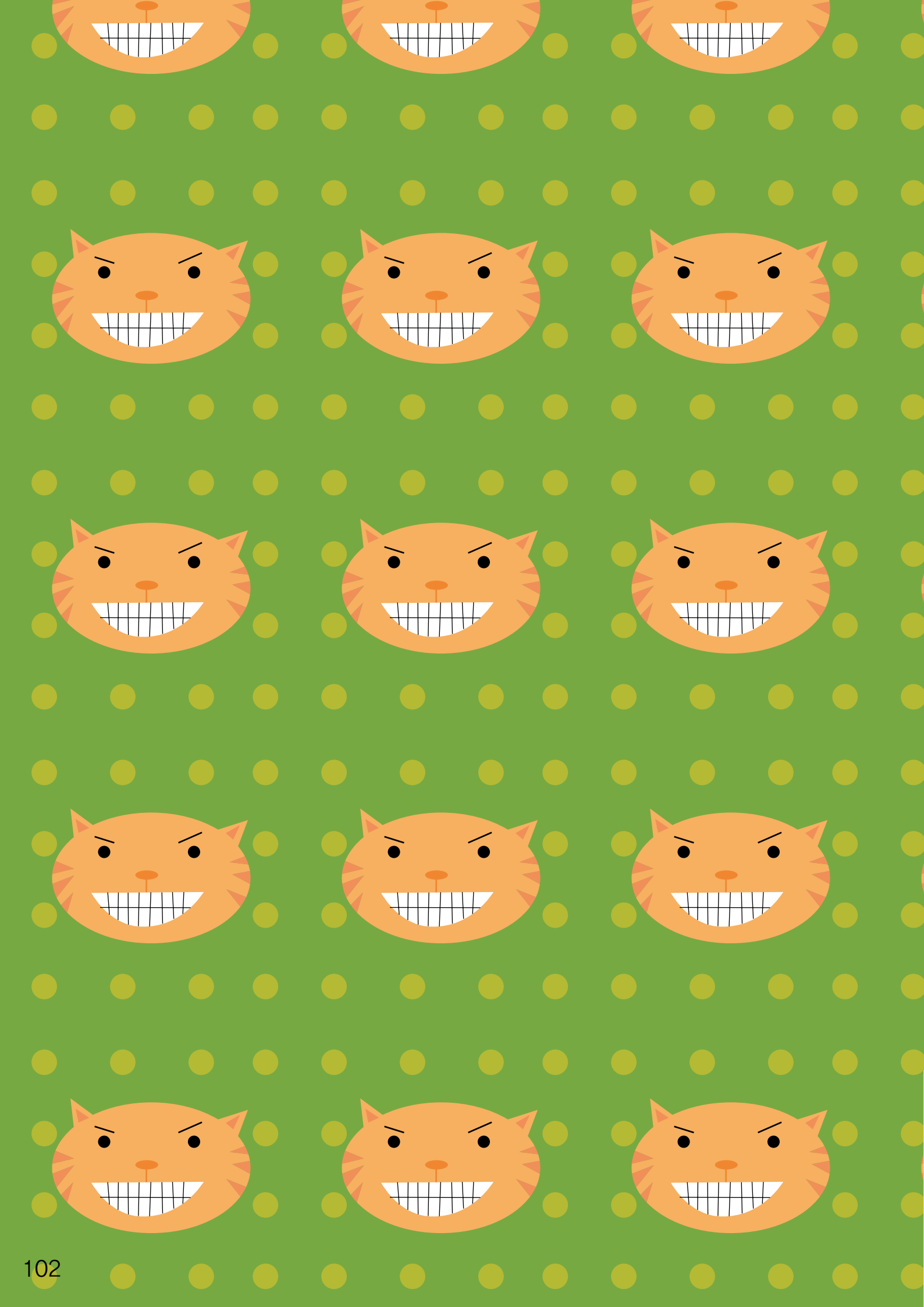


- 자르는 선 _____
- 접는 선 - - - - -

구름 기둥 붙이는 곳

불 기둥 붙이는 곳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7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